

〈1979년도〉

- 김 성린, “칼빈主義 立場에서 본 教會와 國家”, 「개혁신앙」, no.13 (1979. 3), pp.18-21.
- 신 복운, “칼빈의 教會觀”, 「神學指南」, 46. no.1 (1979. 봄), pp. 39-52.
- 정 성구, “칼빈의 說教 研究(1)”, 「神學指南」, 46. no.1 (1979. 봄), pp. 53-73.
- 김 득룡, “칼빈의 목회 신학 연구”, 「神學指南」, 46. no.2 (1979. 여름), pp. 8-45.
- 정 성구, “칼빈의 설교 研究(2)”, 「神學指南」, 46. no.2 (1979. 여름), pp. 46-66.
- Hans H. Esser(장 일조 역), “칼빈의 政治理論”, 「세계와 선교」, 1979. 6, pp. 39-51.
- 이 장식, “칼빈主義에 대한 辨證”, 「세계와 선교」, no.63 (1979. 8), pp. 5-14.
- 김 경재, “現代神學에서 본 칼빈 神學의 위치”, 「세계와 선교」, no.63 (1979. 8), pp. 15-24.

## 書 評

■ 書 評 ■

# The Genius of Puritanism

Peter Lewis 저

김 형 규  
(고려신대 전강)

## I. 서 론

세상의 빛인 교회가 어두워졌다면 온 세상의 어두움은 얼마나 심하겠는가?

저자는 빛으로서의 교회가 제자리에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온갖 것을 다 바쳐서 노력했던 청교도의 모습을 독자에게 보여주고자 한다. 그는 오늘을 말하여 율법이 부인되고, 은혜가 악용되며, 진리가 단순한 교리로 소홀히 되고, 경험의 계시와 같은 비중을 가지는 때라고 말했다. 완전히 지구 반대쪽에 있는 우리이지만 교회 형편은 그들과 별로 다를 것 같지 않은 우리의 현실에서 그의 책을 살펴보는 것은 많은 유익이 있을 것이다. 다음의 내용은 거의 전부다. 피터 루이스 목사가 쓴 '청교도주의의 진수'를 소개한 것이다.

## II. 청교도주의

‘청교도’나 ‘청교도주의’가 무엇인가 하는 문제는 영국에서 이 말이 처음 사용될 때부터 많은 논쟁을 일으켰고 널리 그 의미가 혼동되어서 사용되어 왔다. 청교도주의가 발전하는 동안에 여러 방면에서 청교도의 이상과 깊은 관련을 가진 국가적, 정치적, 사회적인 내용들이 부수적으로 생겨나서 이 용어의 강력한 종교적 의미와 영적 의미를 흐리게 하였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상에 대하여 완벽한 정의를 내리지 않는다고 해도 본질적인 청교도주의는 다음 세 가지 국면에서 성장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① 신약의 모범을 따라 개인적인 경건 생활을 하며, ② 신약의 모범과 같은 건전한 교리를 갖고, ③ 신약의 모범과 같은 타당한 질서를 가진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이다. 이 세 가지가 서로 섞이고 얽혀서 과거로부터 현재에 이르는 놀랍고도 영감에 찬 영국의 청교도주의를 이룩했다.

다시 그 첫째의 개인적인 경건 생활부터 살펴보면 이 운동의 대 지도자였던 윌리엄 에임즈는 ‘신학’을 정의하여 ‘하나님을 향한 삶의 교리’라 한 일이 있었고 그 정의를 하면서 청교도주의의 모든 감동적인 정신을 확연하게 드러내었다. 왜냐하면 청교도주의는 어떤 체계적인 규칙이나 신조라기보다는 생명력이기 때문이다. 그 생명력이란 하나님 중심 생활의 가능성에 경이를 느끼며 그 생활의 만족스러움에 흥분을 느끼며 그 생활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 곳을 향하는 비전이며 충동이다. 더우기 이들의 강철같은 훈련과 열렬한 헌신의 생활은 청교도들을 한편으로는 지지분한 신비주의로부터 다른 한편으로는 단순한 세상 종교가 되는 것으로부터 구해 준다. 청교도 경건의 유명한 특징은 이 율법과 은혜의 놀라운 결합이다. 이들의 생활은 모든 영역에서 하

나님의 영향력과 말씀의 인도 아래에 있다.

매일매일은 탐구적이고 헌신적이며 조급하게 서두르지 않는 개인 기도와 가정 기도로 시작되고 끝이 난다. 모든 일은 전문적인 일이나 손으로 하는 일이나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며 그의 완전하신 뜻을 견실하게 살피면서 행해진다. 사업상의 일이나 개인적인 모든 관계는 영적 원리에 의하여 규제된다. 노동을 하지 않는 시간은 즐거움으로 열심히 성경 연구, 공예에 출석, 경건한 대화, 영혼의 유익을 위하여 도움이 되는 일이나 전도하는 일에 사용된다. 이들에게는 경건이라는 위대한 일이 불붙는 야심이 되고 있으며 이들은 모든 힘을 다 경건에 쏟고 있다.

많은 수도원적인 사상들이 실패했던 일들을 청교도주의는 상당한 범위에 이르기까지 성공했다고 말할 수 있다. 왜냐하면 청교도주의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나타나서 참된 교리를 생활로 구체화했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땅 위에서 땅 위의 것이 아닌 것을 보았다. 여러 점에서 사람들과 접촉을 하면서도 숨막힐 것처럼 아름다운 영적 윤리적인 나라로 나아가는 삶을 보았던 것이다.

둘째로 이들에게는 영적 생활의 활기와 함께 교리에 있어서 정직함과 견고함이 있었으며 이것은 성경적 사상 위에 선 성경적 생활의 기초를 이루고 있었다. 리처드 박스터는 그의 책의 서두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건전한 교리는 건전한 판단, 건전한 마음, 건전한 생활, 건전한 양심을 이룬다”. 만일 그렇게 되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교리가 잘못 되었는지 교리를 잘못 이해했는지 둘 중의 하나일 것이다.

경건은 땅에서 솟아나는 것도 아니며 공중에서 생겨지는 것도 아니다. 참된 경건은 태어나는 것이다. 신비한 경험에 의해서 또는 교육된 본성에 의해서가 아니라 은혜와 진리의 고귀한 결혼에 의하여 태어난 것이며 경건한 청교도는 이 양친이 낳은 아이이다. 청교도의 문학

은 사람의 정신에 장중한 인상을 남기는 기독교 교리로 가득하다. 청교도들이 자기들이 설명하는 바로 그 교리 때문에 고귀하게 된 사람이란 것은 두말할 여지가 없다. 그들의 정신은 그 책만큼이나 풍부하며 그들의 경건 역시 풍성하다.

칼빈주의자들은 그들의 신학적 전통 가운데 섭리와 은혜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이 고귀한 개념을 보석처럼 귀하게 여겼다. 그들이 폭풍 같은 역경 속에서도 조용히 지낼 수 있었고, 타락한 인생은 절망적이라는 사실과 확실한 피난처가 있다는 사실을 그렇게 강하게 사람들에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이 주권 사상을 얼마나 믿었는가를 잘 말해 준다.

하나님에 대한 교리가 이들을 고귀하게 만들었다면 죄에 대한 교리가 이들을 겸손하게 만들었다. 이들은 지지치 않고 죄는 인간의 질병의 뿌리이며 재앙 중의 재앙이라고 외쳤고 타락한 인간 본성 가운데서 악의 가능성은 물론이고 죄를 지을 가능성을 인정했다. 이들은 책이나 설교에서 죄의 모든 가증되고 악함을 드러내고 사람이 가진 자신감을 파괴하며 은혜만으로 되어질 수 있는 구원의 길을 가르친다.

청교도주의의 세 번째 주요한 특징은 교회를 중요시한 것이다. 사실 청교도주의는 성경만을 따라서 영국 교회의 모습을 개혁하려는 노력으로 시작되었다. 민권도 교회권도 신약에 나타난 교회 정치와 교회 생활의 모형에 대한 충분하고 확실한 가르침에 더하거나 빼거나 할 권위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영국 교회의 의식과 복식을 거부하고 신약에서보다는 전통에서 자라난 감독 교회 정치를 거부하고 개혁의 기본 원리에 일치하지 않고 영국 교회를 계속하려는 감독 정치를 거부했다. 복식이나 교회 정치에 구체적으로 반대하는 형태로 청교도의 개혁 운동이 나타났지만 이보다는 근본적으로 지상의 그리스도 교회를 전반적으로 규정하

는 원리에서 현실 교리를 반대하고 있었던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누가 교회와 생활의 영적 영역을 다스리는가—하나님인가 사람인가?—이다.

이것은 근본적인 문제이다. 루터나 칼빈의 때에 얼마나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던 문제인가? 청교도들의 대답은 성경의 유일한 권위 아래서 교회의 자유라는 확신있는 긍정이었다. 이를 위하여는 이들은 청명한 하늘처럼 선명하게 결단성을 가지고 수난을 당할 각오를 가지고 있었다. 계속해서 저자는 청교도의 역사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 Ⅲ. 청교도의 역사적 고찰

청교도의 기원에 대하여는 대체로 더 이전이라고 말할 수 있겠으나, 이 운동은 1559년 통일령과 함께 일어났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엘리자베스 I 때 일어나서 이 운동을 두려워하는 제임스 I 아래 성장했고 찰스 I와 그의 대주교 윌리엄 로드 때 성장했다. 로드는 이 운동을 증오했다.

그후 이 운동을 명예롭게 한 크롬웰 아래서는 짧지만 당당한 세력을 가졌다.

마지막으로 찰스 II와 이 운동을 미워하는 그의 주교들 때 끝이 났다.

16세기의 첫 번 청교도 세대는 정치적 수단으로 교회의 정치와 예배를 개혁하려 했다. 그러나 엘리자베스는 로마 가톨릭과 제네바의 칼빈주의의 중간을 걷는 형태로 조정했다. 청교도들은 정치적인 영역에서는 엘리자베스의 적수가 되지 못했다. 청교도들이 교회를 위에서부터 아래로 즉 의회에서 입법하여 개혁하는 일이 실패하게 되자 이번에는 더 강한 힘으로 강단, 언론, 개인적인 영향력을 통하여 아래에서부터

위로의 개혁을 모색했다.

비록 청교도주의가 영국 교회의 태두리 안에서 성장한 것이지만 그렇다고 영국 교회주의의 부산물로 생각하기는 어렵다. 물론 국교회의 한 형태이거나 그것의 발달된 형태도 아니다. 그것은 프랑크푸르트의 영국 교회에서 있었던 존 낙스와 리차드 카스의 차이에서 볼 수 있는 바와같이 청교도 정신과 국교회 정신 사이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었다.

이들은 아주 가까이 접근해 있는 두 나무처럼 처음에는 하나로 보일 정도였으나 세월이 지나감에 따라 정치적으로 교회 감독에 의하여 통제되는 국교회에 견디기 어려워지자 청교도주의는 구별된 개체이며 개별적으로 발전해 갈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나게 되었다. 이것이 나타난 형태는 처음에는 개인들이 비국교도로의 독립을 위해 지속적인 모험을 했고 다음은 초기의 분리주의자들에 의하여, 그 뒤 제임스 I 때 해외로 나간 청교도들의 과정을 통하여 드디어 1662년의 대추방이 있을 때 2000명이나 되는 대량 이탈로 이루어졌다.

그렇다고 청교도주의를 분리와 비국교도의 사상으로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 왜냐하면 이들은 비국교 안에서 놀라운 성장과 발전을 했으며 비국교도야말로 청교도주의의 참된 본질을 나타낼 수가 있기 때문이다. 이 운동은 엘리자베스 I의 말기 공동의 비전과 정신을 가진 수백 명의 젊은 목회자들의 출현으로 퍼져갔다. 윌리엄 퍼킨스, 리차드 로저스 등의 설교와 저서 등 유능한 지도자들이 계속하여 일어나 이 운동에 불을 질렀다. 제임스 I과 찰스 I 때 리차드 십스의 저서들이 앞세대가 씨를 뿌려 놓은 땅 위에 물을 주는 역할을 했다. 그후 크롬웰의 치세를 거치는 동안 청교도들은 그 전성기를 맞이했고 계속하여 오웬, 박스터, 구드윈 등 많은 지도자들이 나타났다. 그러나 이 동안도 청교도들은 많은 고난이 따랐다. 제임스 I는 청교도주의를 왕권을 제

한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청교도 지도자들을 그 땅에서 멸망시켜 버리겠다고 생각했다. 이때 많은 청교도들이 미국, 화란으로 이주하게 되었다. 그러나 대다수의 청교도들은 제임스의 왕위가 찰스에게로 넘어가면서도 계속되는 역경을 헤치고 나갔다.

이 동안 청교도들이 당한 괴로움은 말할 수 없는 것이었으나 그들의 사상은 교회와 국가의 종교 생활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특히 이때에 강조되어 나타난 자각은 개인은 시대의 노예일 수가 없다는 것이다. 개인은 불멸의 영혼을 소유한 것이 아닌가? 하나님의 아들은 이들을 위하여 온 것이 아닌가? 이러한 자각은 양심, 법, 자유의 위치를 그들의 군주 위에 둔 것으로 나타나며 이러한 질서의 변화를 따라 영국 역사의 모습을 바꾸어 갔다.

찰스 I가 영국의 자유를 침식해 들어가고 그의 과묵스러운 신하인 국교회 대주교 윌리엄 로드가 국가의 대부분을 이루고 있는 자유로운 영혼들인 청교도들을 속박하려 할 때 경건한 이 무리들의 반박을 받지 않을 수 없었다. 새로이 각성하기 시작한 개인의 책임과 존엄성에 대한 자각에 크게 거슬리게 되었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전투적인 정치적 청교도주의가 새로이 일어나게 되었고, 이것은 여러 가지 경우에서 의회주의를 통하여 공화 정치주의로 활짝 꽃피게 되었다.

종교적인 청교도주의에 드디어 참된 자유의 태평 시대를 준 것은 이 혁명 때이며 이 혁명이(1642-1648) 왕정과 교권 계급을 동시에 몰락시킬 때 청교도주의는 크롬웰(1654-1658)의 계몽적이고 명성이 높은 통치 아래 충분히 표현되고 최대한으로 확장되었다. 그러나 정치적 청교도주의와 종교적 청교도주의는 불안한 동료였다. 많은 청교도들은 온건한 왕당파였고, 많은 사람들이 사랑이 적고, 많은 사람이 크롬웰을 믿지 않았으며, 청교도 성직자 중에 크롬웰처럼 넓은 마음과 날카로운 정치적 감각을 가진 사람은 거의 없었다. '성도의 통치'는 여러

국면에서 그 자체에 파멸의 씨앗을 품고 있었다.

그러나 크롬웰의 사후 그의 공화국이 몰락하고 찰스 II 때 스튜어트 왕조가 영국의 왕위를 획득했을 때도 청교도 혁명은 계속되었다. 이 청교도주의가 단지 내란을 통한 정치적 혁명이었다면 이러한 지속성은 없었을 것이다. 이 배후에는 여러 점에서 이보다 뛰어난 더 크고 순수한 영적인 청교도 혁명이 있었기 때문에 청교도주의는 계승되어 갔다.

왕정으로 복고되자 1660년 왕당파 의회가 다시 한 번 국교회 주교들을 부추켜서 청교도들의 박해를 격렬히 시작하였다. 물론 박해하는 자들은 영적인 청교도와 정치적인 청교도를 구별하지 않았다. 새 기도서가 부과되었고 곧이어 악명 높은 통일령이 뒤따랐다.

이 조례는 새 기도서에 있는 모든 내용을 거짓없이 동의할 것을 요구할 뿐만 아니라 장로교 임직을 포기하고 감독 교회에서 다시 안수받도록 복종을 요구한다. 그뿐만 아니라 찰스 I에 대한 충성의 맹세도 포함하고 있는데 이 맹세는 1643년 찰스 I에 대한 의회의 항거를 정당화한 엄숙 동맹을 포기할 것을 의미한다.

많은 청교도들은 한 번 안수받은 것을 버리는 것은 신을 모독하는 것으로 생각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이 새로운 왕에게 기꺼이 충성하고자 해도 한 번 맹세한 서약을 포기하는 일은 위증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 또한 대다수의 청교도들은 참된 경건에 대하여 모독에 가까운 새 기도서의 여러 가지 내용을 동의할 수는 없었다. 필연적으로 1662년 겨울이 오기 전 2,000 명에 가까운 가장 좋은 신자들이 성직으로부터 쫓겨나서 대부분이 극빈 중에 그들의 가족과 함께 세상에 내동댕이쳐졌다. 계속하여 잔인하고 교활한 법안이 시행되어 공사석 간에 설교하는 것도 금하였다. 그후 모욕적이고 중상적인 음모가 뒤따라서 모든 청교도 운동을 편당적이고 광격이며 폭동적이고 무식하며 정신이 온

건치 못한 사람으로 구성된 것처럼 더럽히고 욕되게 하려고 노력했다. 청교도 지도자들 중에 대부분이 옥스포드나 케임브리지의 교육을 받은 인물이며 많은 청교도들이 교양 있고 온건하며, 극치의 경건을 가졌던 사람들이었다는 것은 곧 잊혀졌다.

청교도주의는 박해와 정치적인 실패 이후 철저한 종교적 비국교도로 남아서 자체의 빛을 발해 왔다. 이들은 면면히 그 정신을 이어오다가 1688년 명예 혁명으로 옛날의 자유를 회복했고 18세기 초반이라는 위험은 덜하다고 해도 더 음흉한 일반적인 냉담과 완고함 가운데도 살아 남았으며 빅토리아 왕조 때에는 이 비국교도가 대대적인 선교 활동을 할 수 있었고 오늘날도 청교도 형제들의 생활과 글은 끝없는 기념비로 꺼지지 않는 영감으로 남아 있다.

#### IV. 강단에서의 청교도들

대부분의 참된 청교도 혁명은 무혈, 영적, 언어에 의한 것이다. 강단이 이 싸움에서 세상, 죄, 마귀에 대한 가장 힘있는 공격 장소였다. 설교자들은 멀리서 약속의 땅을 보여준 사람이 아니다. 교인들을 그곳에 데리고 가서 그 열매를 맛보게 하고 그 땅의 주인인 것을 주장하도록 명령했다. 청중은 설교를 소유했다. 이들의 설교는 밑실에 깊이 명상한 흔적이 있고 거리를 깊이 살피본 흔적도 있다. 그들은 '다시 설교할 수 없으리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설교했고' '죽어가는 사람이 죽어가는 사람에게'라는 간절함으로 했다.

##### (1) 설교의 존엄성

"그리스도는 그의 제자들에게 그들이 자기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나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다. 당신들은 설교자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오고 천사의 이름을 갖고 있고 그의 모든 말이 생명의 전파자인 그를 떨시받을 사람이라고 생각하는가? 예언자는 하나님과 이런 관계에 있다. 하나님은 그의 예언자들에게 나타내기 전에는 아무 것도 하지 않을 것이라 했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의는 상대자들이다.”(헨리 스미스)

### (2) 설교의 필요성

“설교를 하지 않으면서도 항상 남을 기쁘게 대하고 이웃 사이에 평화를 이룩하고 자비와 선행의 다른 모든 일을 하면 자기의 의무를 충실히 다한다고 생각하는 목회자가 있다면 그는 완전히 속고 있는 사람이다. 목회자가 이 설교의 선행이 없으면 그에게는 아무런 덕행이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윌리엄 퍼킨즈)

### (3) 설교에서 요구되는 것

존 플라벨은 다른 동역자들에게 말했다. “형제들이여 다른 사람들의 천 가지의 죄에 대하여 웅변가처럼 외치는 것이 우리들 자신 속에 있는 한 가지 죄를 신자답게 극복하는 것보다 쉽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스무 번 설교하는 것이 우리 자신의 마음에 한 번하는 것보다 쉽습니다.”

### (4) 설교의 특징

문체에 있어서 답답하지 않으면서도 평이한 것이 청교도 설교의 본질이다. 강조할 때는 교리와 실천이 놀랍게 조화된다. 특징이라면 문자적이든 영적이든 그들이 사랑하는 성경 말씀의 해석에 신실하게 헌신적인 것이다.(저자)

### (5) 설교의 내용

설교를 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신비를 열어 주는 것, 무엇이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열어 주는 것, 그 상자를 깨뜨려 그 향기를 모든 사람이 알게 하는 것이다.(리처드 십스)

## V. 예배 속에서의 청교도

이 장에서 저자는 ① 전파된 말씀을 듣는 데 필요한 준비 ② 전파된 말씀을 들을 때 필요한 행위 ③ 전파된 말씀을 들은 후의 의무 ④ 전형적인 청교도 예배 ⑤ 금식일 ⑥ 청교도 강해의 순서로 또박또박 유명한 청교도들의 글을 인용하면서 성실하게 소개하고 있다. 이 중 특히 금식일과 청교도 성경 강해는, 우리가 받고 있는 부흥 사경회에 많은 영향을 미친 것 같다. 한국 교회가 계속적으로 연구하여야 할 과제가 아닌가 싶다.

“이 경우, 그는 보통 아침 아홉 시경에 약 15분간의 기도로 시작한다. 이 기도 중 그날의 모든 일에 축복을 간구한다. 그 후 성경 한 장이나 시편을 읽고 강해하는데 45분이 걸린다. 그리고는 한 시간 동안 기도하고 그 후 한 시간 정도의 설교를 한다. 그리고는 잠시 물러나서 약 15분을 쉬게 되는데 그동안 교인들은 찬송을 부른다. 그 후 다시 강단에 서서 한 시간 기도를 하고 약 한 시간 정도의 설교를 한다. 그리고는 30분 정도 기도하고 오후 4시경 그날의 예배를 마치게 된다.”(존 호이)

이런 식의 금식 예배는 그렇게 드문 일이 아니고 공적·국가적인 금식 외에도 열 두 명 혹은 20명씩 친구의 집에서 개인적으로 많은 금식 일을 지켰다.

이러한 형태의 금식일이 한국에서 성행하는 집단 철야 기도회보다 더 효과적인 영적 잔치가 될 것이다.

청교도 성경 강해는 처음부터 청교도주의의 유명한 특징이었다. 길고 깊은 설교가 목사들과 이웃의 청교도들이 참여한 가운데 행하여지는데 이는 주로 주석의 형태를 갖든지 기독교 교리나 실천에 관한 방대한 주제를 연속적으로 취급한 것이다. 이 강해는 주석이나 논문으로 활자화되었고, 그것들 중에는 엄청나게 긴 내용들이 있다.

이것은 별 내용 없이 예화로 부흥 설교를 끌고가기 때문에 책으로 만들 수 없는 우리 형편의 부흥회와 좋은 대조가 된다.

## VI. 실생활에서의 청교도

저자는 이 3장을 가장 길게 다루고 있다. 책 전체의 반 이상을 이 장으로 충당하고 있으며 목회자로서의 청교도들을 취급하고 있다.

청교도 목회자들은 네 가지 방법으로 목회자의 기능을 다하였다. 그것은 교리 공부, 목회 상담, 위로, 특별한 사적 예배를 통하여 사람들과 시간을 함께 하는 것이다.

청교도 교리 공부의 예를 들어 보면 “우리는 월요일과 화요일은 아침부터 거의 저녁까지 이 일을 하였다. 구역 외의 지역은 다른 조사가 교육하였다. 한 주일에 15~16 가정을 한다면 1년에 800 가정을 돌리 볼 수 있을 것이다.”(리차드 박스터)

청교도 목사들의 상담의 일은 피로움 가운데 있는 신자의 양심과, 아직 중생을 하지 않았지만 죄를 깨닫고 구원의 길을 더 알기 위하여 찾고 있는 양심에 해결을 주는 일을 말한다. 위로의 사역은 이들이 성경적인 교리에 견고했다는 것이 그 특색이다.

청교도들은 불확실한 소망과 함께 불확실한 지푸라기를 움켜쥐려고 하는 피로운 마음의 요인이 되는 공허함과 주관주의를 충분히 피할 만큼 숙련된 영혼의 의사들이었다. 따라서 이들은 확실한 위로를 줄

수 있었다.

마지막의 특수한 개인적 예배의 시간을 같이 가지는 일은 사적인 금식일, 추수 감사절 등이며 ‘올리버 헤이우드’의 많은 일기에 보면 여기에 출석한 기록들이 많이 나타나 있다.

이 3장은 특히 영적 침체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영적으로 침체된 상태, 원인, 그 치료 이렇게 나누어서 청교도들의 글을 소개하고 있다. 특히 오늘날처럼 신자들의 영적 활성화보다도 병든 양이든, 기절한 양이든, 죽은 양이든, 영양 실조된 양이든, 양같이 보이는 이리이든 그 수자에만 관심이 많은 교회 경영자들에게 좋은 약이 될 내용이다.

교회의 확장을 위한 우리의 방향을 이들의 신앙과 신학이 제시해 주고 있다. 제임스 페커 교수가 지적하는 대로 이들의 교회 개혁 활동은 오늘의 전도 활동에서 많은 것을 비판하도록 한다.

“개신교의 전도의 역사를 보면 두 가지 뚜렷이 구별이 되는 전도의 개념과 그 형태가 있다. 우리는 그것을 ‘청교도적’ 형태와 ‘현대적’ 형태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오늘날은 이 현대적 형태의 복음 전도에 우리가 너무 익숙해 있어서 다른 형태는 전도로 생각하지 않을 정도이다.” 이들은 전도를 위한 특별한 운동을 지역을 따라 시간을 정해 놓고 일으키며 ‘예배’라고 하지 않고 ‘모임’, ‘집회’라고 부른다. 그들은 하나님께 대한 정규적인 공예배와는 구별이 되는 어떤 형태를 생각한다. 이 집회에서 모든 노력은 중생되지 못한 사람에게서도 직접적이고 의식적이며 절단적인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얻어 내려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집회가 마칠 때 결단을 한 사람은 앞으로 나오든지 손을 들게 해서 그들의 새로운 결심을 대중 앞에 증거하는 행동을 하게 한다. 그리고는 곧 완전한 신자로 개교회에서 받아들여도록 요구한다. 그리하여 쉽게 교인이 되고 집사도 되고 장로도 된다. 그 결과



그리스도의 바라는 것과 교회의 다수가 원하는 것이 일치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불행이 초래된다.

페커 교수는 계속하여 말하기를 “이러한 형태의 전도 방식은 1820년 대 찰스 피니에 의하여 발명된 것이다. 피니는 그의 인죄론 교리가 펠라기안주의였다. 비추어 말하면 그는 사람의 전적 부패의 교리를 갖지 않았고 도리어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완전한 능력을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래서 전도에 있어서 성령의 역사는 윤리적 설득 정도로 제한이 된다. 그는 복음적 설교를 그와 청중들 사이의 의지의 싸움으로 간주했고 그들을 깨뜨리는 것을 자기의 책임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나 청교도의 전도는 죄인의 회개는 하나님의 능력의 은혜로운 주권적 역사라는 청교도적 확신에 근거하고 있었다. 이것은 사람이 자기를 위하여 혹은 남을 위하여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와의 영원한 연합에 근거하여 선택된 죄인이 성령에 의하여 그의 구속주와 사실상 결합하는 것이며 따라서 이것은 거저 주는 하나님의 선물이며 하나님의 능력의 사역이다. 그래서 효과있는 부르심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이다. 회개의 시기, 회개의 방법까지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다.

이러한 청교도의 원리에 의하여 전도 활동에 대한 독특한 개념들이 나타난다. 하나님이 조명해 주시고 죄를 깨닫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기 때문에 그의 사자의 할 일은 그 말씀을 전파하고 율법과 복음을 가르치고 적용시키는 일이다.

청교도들이 주장하는 대로 전도 설교는 그 자체에 특별한 기술을 가진 특수한 설교가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역이다. 이것은 그 규칙이 말씀의 다른 공포와 같은 규칙을 가지며 일치적으로 이 일을 수행하는 사람은 그 지역의 목사이다. 오웬의 말처럼 영혼들

이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힘써야 하는 것이 그의 과업이다. 하나님은 그에게 요구하시는 일은 복음의 내용에 신실하여야 하며 그것을 나누어 주는 일에 부지런해야 한다는 것이다. 청중의 생활과 관련이 되게 전해야 하며 그의 설교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도록 기도해야 하며 성령과 능력의 역사가 되도록 해야 하며 결코 복음에 옷을 입히거나 자연인에게 억지로 호소하는 것이 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사람의 함성과 분위기에 많은 지배를 받는 전도 모임에서 가끔 나타나듯이 설교자의 외침이 행상인의 외침처럼 당장 팔아치우려는 형태가 되지 않아야 한다. 하나님은 파견세일을 위하여 설교자를 보낸 것이 아니고 메시지를 전파하도록 파견했다. 결정을 위해서 애쓰고 호소하는 것은 그의 일이 아니다. 죄를 염려 말고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하는 것은 가장 나쁜 충고이다. 거짓 평화와 거짓 소망을 장려하는 이러한 길은 복음적 위선자를 만들어 내는 길이다.

그가 신실하게 말씀에 충성했을 때 그의 말씀이 효력을 발생하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대권에 속한다. 여기에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신앙이 있어야 한다. 청교도 목사들은 여기에 확신이 있었다. 이 책의 목사들은 현대 전도와 같은 방법을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다.

저자 Peter Lewis 목사는 그의 다른 저서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지 않은 젊은 목사이다. 그러나 청교도의 교리와 모범이 모든 세대에서 교회 번영의 부동의 열쇠임을 확신한 청교도 연구가이며 그의 교회 목회 역시 청교도적 복음으로 충만하며 생동적이다. 그가 본래 이 책을 쓰면서 목표한 것, 즉 정당한 설교의 중요성과 청교도들이 교회에서 만나게 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 특히 영적 침체의 문제에 대하여 얼마나 깊은 교리적 감각과 영적 지혜로 적용했나를 보여준 것과 청교도의 글 그 자체를 독자들이 읽도록 자극이 되고 싶다고 한 모든 것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는 책이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오늘을 목회하는 사

람들에게 위대했던 사람들과 같이 호흡을 할 수 있게 해줌으로 많은 용기를 불리일으켜 주는 책이며 그가 이 책의 내용을 이처럼 분류한 것은 그 자신이 목회자이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모두 144페이지이며 마틴 로이드 존스 박사의 머리말이 있고 원문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참조를 달아두었다.

## 聖書의 實存的 理解

R.Bultmann. *Neues Testament und Mythologie*

(유 동식 역, 대한기독교서회, 1969.)

최 갑 중

(제 2 훈련소 군목 대위)

볼트만(R. Bultmann 1884-1975)은 바르트(K. Barth), 브루너(E. Brunner) 티리히(P. Tillich) 등과 함께 금세기가 낳은 가장 이름있는 신학자 중의 한 사람으로 불리워진다. 특히 신약학 분야에서 그의 명성은 '볼트만을 통과하지 않고는 신약학을 할 수 없다'는 말이 있을 만큼 타의 추종을 불허하였다. 무엇이 볼트만으로 하여금 이와같이 세계적인 명성을 얻게 하였는가? 여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 지금 소개하고자 하는 바 소위 신학계에 '비신화화 논쟁'을 불리일으킨 그의 논문 「성서의 실존론적 이해」(1941년 처음 발표될 때의 제목은 〈Offenbarung und Heilsgeschen〉이었으나 1948년 *Kerygma und Mythos*에는 〈Neues Testament und Mythologie〉로 개제되었다. 이를 1969년 유 동식 교수가 번역, 상기 제목으로 기독교서회에 의해 출